



군종주보

2026년 10월 18일(제1322호) 연중 제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진교 주일)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의 복음 말씀과 깊이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교야말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의 환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몰려드는 모습이지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에 민족들이 몰려듭니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이자 심판관으로서 계시며 평화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 성당에 나오길 권유하는 것도 선교이지만, 참된 선교는 바로 주님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이 동반되는 것. 즉,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수님을 닮고, 하느님의 빛을 전달하는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선교의 모습이겠지요.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복음 선포를 명하시며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아 나누는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을 왜 전달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 기쁨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기쁨을 더욱 커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서로가 다른 그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이들을 마주치지요. 가족, 친척, 친구, 동료, 그 밖의 수많은 이들을 마주합니다. 그들과의 삶 안에서 사랑을 서로 나눌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모습.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과 닮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기도가 되며, 그 자체로 선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복음을 느낄 수 있다면 무엇보다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과 함께,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들과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움과 행복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총,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주시기를 주님께 청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현유(미카엘) 신부
명성대(공군 제8진투비행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화답송 제 2 독 시 복음 원호송

이사 2,1-5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로마 10,9-18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영성제송

마태 28,16-20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천주교 군종교구사(군 시목 50년사)

1956년 4월 6일, 김동한 신부의 후임으로 김창석 신부가 부임하였다. 전방에서 활동하였던 김창석 신부에게 후방의 군종업무는 매우 생소하였다. 그러나 그는 곧 조직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별로 모임을 갖고 군종업무의 기틀을 확립해 나갔다. 천주교 장교들과 그 가족을 위하여 육군에 ‘월요회’, 해군에 ‘수요회’, 공군에 ‘금요회’를 조직하여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교리 강좌를 개최하는 동시에 친목을 도모하였다. 또한 주임신부가 공석중이던 진해 천주교회의 사목도 담당하였다. 그러나 부임한지 약 1년만인 1957년 5월 24일 김 신부는 전역하였다. 그리고 군종신부의 숙적인 부족으로 후임이 파견되지 않아 진해 통제부의 천주교 군종업무는 약 1년 동안 중단되었다.

1958년 7월, 통제부 사령부에 부임한 김은식 신부는 김창석 신부가 사용하던 동산동 18호 영관급 장교 관사를 임시 군종 사제관으로 개조하였다. 그리고 이곳을 평일 미사 장소로 삼는 한편, 레지오 마리아 3개 브레시디움을 창설하여 전교에 주력한 결과 100여 명의 세례자를 탄생시켰다. 1960년 6월 김은식 신부가 군종신부단 본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진해지역의 천주교 교세는 436명으로 신자 366명, 예비자 70명이었다. 김은식 신부는 출판물을 통한 전교를 위하여 장교 신자들로 구성된 출판물 보급위원회를 조직하여 각종 종교 서적을 매입하였다. 그리하여 군종 사제관에는 진해 해군 고문단 신자들이 기증한 200여 권의 책을 비롯하여 1,000여 권의 도서를 비치한 작은 도서관이 마련되었다.

4) 해병대 사령부에서의 군종활동

해병대 사령부의 천주교 군종활동은 1952년 8월 10일 유봉구 신부의 부임과 함께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김동한 신부에 이어 두 번째 해군 군종신부로 입대한 유 신부는 1952년 7월 10일 해병 특과 7기생으로 수료하여 대위로 임관하였고, 해병대 사령부(부산 용두동)에 파견되었다. 유 신부는 당시 해병대 유일의 군종신부로서 해병대 사령부에 한정하지 않고 백령도 등 해병사단 작전 지역을 수시 방문하여 야전 미사를 봉헌하였다. <다음 주에 계속>

『천주교 군종교구사(군 시목 50년사)』 발췌, 천주교 군종교구

복

음

목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저 하늘까지

너를 들어,
저 하늘까지.

너는 내게
그런 이쁜 사람이다.

너를 안고,
저 마지막까지.

그러니,
안심해라.
걱정 마라.



100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목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마르틴 판 니우엔호비의 두 폭 제단화



한스 멤링(Hans Memling), 1487년 제작
패널에 유채
성 요한 병원, 벨기에 브뤼헤



본 작품의 주문자 마르틴의 이름 성인인 마르틴 성인이 오른쪽 제단화 상단부 구석의 스테인드글라스에 말을 탄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후대의 가문이나 가족이라도 주문자가 누구인지 쉽게 식별할 수 있다.

투르의 성 마르틴
(Saint Martin of Tours)



왼쪽 패널 상단 창에는 “IL Y A CAUSE”라고 적혀 있는데, 현대 프랑스어로는 “이유가 있다 / 원인이 있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Not without reason”, 즉 “까닭 없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 가문의 모토이다.

그 주변의 네 개 원형 메달에는 구름에서 뿔어 나온 손이 땅에 씨를 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는 ‘새로운 정원’을 뜻하는 가문의 이름(Nieuwenhove)을 시각적으로 번역한 장치다. 또 다른 두 개의 원형 메달에는 성 게오르기우스와 성 크리스토포루스가 등장해, 이 젊은이가 특별히 공경했을 것으로 보이는 보호성인들을 암시한다.

이렇게 작품 속 곳곳에 분포한 가문 문장, 모토, 이름 성인, 보호성인들은 후대 관람자에게 이 인물의 이름과 배경을 잊지 않도록 하는 장치일 뿐 아니라, 그의 삶이 성인들의 보호와 중재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시각적 신앙 고백이다.

액자 전체를 가로지르는 라틴어 명문은 더 직접적이다. “HOC OPVS FIERI FECIT MARTINVS DE NEUENHOVEN ANNO DM 1487 / AN° VERO ETATIS SVE 23”라는 문장은 “마르틴(마르틴) 데 뉴엔호버가 1487년에, 자신의 나이 스물셋에 이 작품을 만들게 했다”라는 의미로, 의뢰자의 이름·연도·나이를 모두 명시한다. 이러한 시각적·문자적 표지들을 통해 우리는 이 젊은이의 이름을 현대까지도 기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영원히 자신을 위한 기도를 바쳐줄 것을 촉구하여, 그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사벳)

교구소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9주일: 통해(옥군) 조영래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 주교회의 2026년 추계 정기총회

때·곳: 10월 18일(주일) 10:3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때·곳: 10월 19일(월) ~ 23일(금), CBCK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